

역참마을로 발전하기 이전의 구마가와

16세기 후반 구마가와가 역참마을로 발전하기 이전에는 와카사국(와카사노쿠니)과 오미국(현재의 후쿠이현과 시가현) 국경 근처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구마가와 남동쪽에 있는 호자카토게라는 고개를 넘어 와카사카이도를 지나던 여행자들은 오미국으로 넘어가서 동쪽 이마즈와 비와코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서 구쓰키, 오하라, 교토(당시의 수도)로 갈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5세기 초 구마가와 인근에는 사람과 물품을 검사하는 시설이 존재했으며, 이를 통해 와카사카이도가 이미 일본해와 수도를 잇는 중요한 루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마타 가문

16세기에는 누마타 가문이 구마가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구마가와 성의 영주였던 누마타 미쓰카네(沼田光兼)의 딸 자코(麿香, 1544년~1618년)는 강력한 권세를 자랑하던 호소카와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호소카와 후지타카(細川藤孝, 호소카와 유사이(細川幽齋)로도 알려져 있음. 1534년~1610년)는 유명한 무장이자 작가로, 이후 단고국(현재의 교토 북부)의 영주가 되었습니다. 자코도 또한 1600년에 다나베 성이 포위되었을 때 성을 지킨 인물 중 한 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기독교로 개종하여 호소카와 마리아로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와카사카이도

구마가와를 지나는 와카사카이도는 주로 교역로로 사용되었지만, 때로는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전국시대에 강력한 다이묘였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년~1582년)의 전기에 의하면 1570년에 인근 에치젠국(현재의 후쿠이 북부)의 영주에게 군대를 보낼 때 구마가와에 하룻밤을 머물렀다고 합니다.